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 48

- □□

정보

개요
곡명: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 48 (TH 48, ČW 45)
작곡가: Pete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장르 ·범위: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네 악장 세레나데 전곡. 작곡가의 피아노 4손 편곡은 별도 자료로 다룬다. 작곡: 1880년 9–10월, Kamenka
첫 연주: 1880년 12월 3일, Moscow Conservatory의 비공개 공연
공개 초연: 1881년 10월 30일, St. Petersburg의 Russian Musical Society 연주회, Eduard Nápravník 지휘

IMSLP: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Op. 48

Wikipedia: Serenade for Strings (Tchaikovsky)

Peter Ilyich Tchaikovsky의 Serenade for Strings in C major, Op. 48은 제 1·제 2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더블베이스를 위한 네 악장 작품이다. Pezzo in forma di sonatina, Valse, Elegia, *Finale (Tema russo)*가 그 순서로 이어진다. 여기서 다루는 것은 현악 오케스트라 원곡 전곡이며, 작곡가가 별도로 마련한 피아노 4 손판은 원곡과 출판 과정을 함께 살피는 자료다.

현악 모음곡에서 세레나데로

1880년 가을 Kamenka에서 Tchaikovsky는 처음부터 세레나데라는 이름을 정해 놓고 쓰지 않았다. 10월 7일 신력 날짜의 편지에서 그는 이미 세 악장을 썼고 이를 현악 오케스트라를 위한 모음곡이라 부를 예정이라고 Nadezhda von Meck에게 알렸다. 곧이어 장르명을 세레나데로 정했고, 같은 달 말에는 네 악장의 총보와
피아노 4손 편곡을 출판사 P. Jurgenson에 보내겠다고 썼다. 출판사에 쓴 편지에서 그는 현악 다섯 성부만
있으면 되는 작품의 실용성을 말하면서도 , 현악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 자선 연주회에서 곡이 울리기를 희망했다. 간명한 성부 구성과 넉넉한 합주 인원을 함께 염두에 둔 셈이다.

완성 직후 Tchaikovsky는 출판을 재촉할 만큼 이 곡을 아꼈다. 같은 해 10월 von Meck에게는 세레나데를
내적 충동에서 썼다고 설명했고, 12월 첫 연주를 들은 뒤에는 당시 자신이 쓴 곡 가운데 가장 좋게 여긴다고 전했다. 1881년 von Meck가 피아노 4손판을 듣고 유보적인 반응을 보이자, 그는 편지에서 편곡판이 현악의 효과를 충분히 전하지 못하며 특히 두 가운데 악장을 현악으로 들어 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곡가의
자기평가는 시점과 연주 매체에 따라 달라졌으며 , 그 편지는 원곡의 현악 소리를 중시한 직접 자료이기도 하다.

네 악장의 진행

I. Pezzo in forma di sonatina. Andante non troppo—Allegro moderato

C major *Andante non troppo* . *Allegro moderato* David Fick LA Phil . Tchaikovsky ‘Mozart ’

Tchaikovsky 1881 von Meck 1 Mozart *Die Zauberflöte* 18 , .

II. Valse. Moderato. Tempo di Valse

G major . *Moderato* *Tempo di Valse* Henle *Voca, voca* , .

1881 St. Petersburg Eduard Nápravník . Tchaikovsky 1889 Berlin , .

III. Elegia. Larghetto elegiaco

D major *Elegia* LA Phil , .

C major G major D major *Elegia* . David Fick , . *Elegia* , .

IV. Finale (Tema russo). Andante—Allegro con spirito

Andante G major *On the Green Meadow* . C major *Allegro con spirito* *Under the Green Apple Tree* . Tchaikovsky 4 *Fifty Russian Folksongs* . ‘ ’ .

빠른 부분이 진행한 뒤 제 1악장의 느린 도입 화음이 끝부분에 돌아온다. 처음에는 소나티나 형식의 빠른 부분을 열던 음악이 여기서는 민요를 쓴 피날레와 전곡의 종결을 잇는다. G major에서 C major로 옮겨 오는 마지막 악장의 조성도 네 악장의 C–G–D–C 배열을 마무리한다 . 제목의 ‘세레나데 ’와 원곡의 네 악장 구조는 이처럼 춤, 느린 악장, 민요 주제를 한 연속된 전곡으로 묶는다.

출판 정보와 자료

총보 자필은 Moscow의 Russian National Museum of Music이 소장한다. 자필의 표제와 Karl Albrecht에 대한 헌정은 확인되지만 , 악보 자체에는 작성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지 않다. Kamenka와 1880년 10월이라는 정보는 편지와 피아노 4손 편곡 자필의 날짜를 대조해 정한다. 편곡 자필에는 1880년 11월 4일 신력의
완성일이 남아 있다.

Jurgenson은 1881년 1월 관현악 총보와 파트를 먼저 발행했고, 작곡가의 피아노 4손 편곡은 그해 4월 출판했다. 2024년 Henle 비평판의 Alexander Komarov 서문은 출판사 카탈로그를 근거로 초판 수량까지 구분한다. 총보와 편곡판이 모두 ‘1881년 출판 ’인 것은 맞지만, 처음 인쇄된 매체와 그 순서를 구별해야 한다. 피아노판은 같은 곡을 다른 매체에 옮긴 작곡가 자신의 편곡이지, 현악 원곡의 대체 편성이 아니다.

1888년에는 Hamburg의 Daniel Rahter가 작곡가 개정판이라는 표기로 새 판을 냈다. 그 판에서는 1881년 초판에 있던 제 1악장 마지막 두 마디가 빠진다. Komarov는 Rahter의 개정 요청을 Tchaikovsky가
받아들였다는 편지 자료를 소개하지만 , 실제로 고친 자필 악보는 남아 있지 않다고 밝힌다. 따라서 두 마디가 있는 초판과 없는 1888년판의 차이는 확실하지만 , 그 삭제를 작곡가가 직접 기입했는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합주가 어떤 판을 쓰느냐에 따라 첫 악장 끝의 길이가 달라지는 지점이다.

소요 시간

전곡은 약 30분이다. 1980년 Herbert von Karajan과 Berliner Philharmoniker의 녹음은 약 30분이며, 악장별로는 첫 악장 약 10분, Valse 약 4분, Elegia 약 8분, 피날레 약 8분이다. 이는 한 녹음의 실연 시간을 분 단위로 나타낸 값이다. 빠르기와 악장 사이의 간격, 제 1악장 말미의 판본 차이에 따라 실제 공연 시간은 달라질 수 있다.

편성

원곡의 악기 표기는 Violini I, Violini II, Viole, Violoncelli, Contrabassi이다. 관악기나 타악기는 없으며, 다섯 현악 성부의 연주 인원은 악보에서 숫자로 고정하지 않았다. 작곡가는 자필과 초판에 현악 오케스트라의
연주자가 많을수록 자신의 뜻에 부합한다는 주석을 남겼다. 앞서 Jurgenson에게 보낸 편지에서 현악이 두
배로 늘어난 공연을 기대한 것도, 많은 인원을 선호했다는 직접적인 맥락이다.

이 주석이 소편성 공연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 Levon Ambartsumian은 2021년 Fanfare 인터뷰에서 약 15 명의 ARCO Chamber Orchestra와 녹음할 때 프레이징과 강약을 유연하게 다루고 정제된 소리를 얻으려고
작은 편성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그 선택은 작곡가가 바랐던 큰 합주와 다른 결과를 겨냥한다. 합주의 규모가 달라져도 연주하는 악기 종류와 다섯 성부라는 원곡의 기본 편성은 같다.

전곡과 발췌곡으로 이어진 공연

1880년 12월 Moscow Conservatory의 교수와 학생들은 Tchaikovsky 방문을 기념해 새 세레나데를
비공개로 처음 연주했다. 지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1881년 10월 St. Petersburg에서는 Eduard Nápravník 의 지휘로 공개 초연되었다 . 작품은 처음부터 네 악장 전곡으로 알려졌지만 , 왈츠의 앙코르와 별도 공연도 곧 이어졌다.

Tchaikovsky 자신은 전곡을 지휘하는 한편, 일부 연주회에서는 가운데 두 악장만 Elegia 다음 Valse의 순서로 골라 연주했다. 이는 출판된 네 악장의 차례를 바꾼 전곡 개정이 아니라 공연을 위한 발췌다. 원곡의 악장
순서와 그가 선택한 공연용 순서를 구분하면, 이 작품이 전곡과 개별 악장 양쪽으로 확산된 경로가 드러난다.

현악 합주의 규모를 달리한 녹음

대편성과 소편성의 선택은 녹음에서도 확인된다. MusicWeb International의 Stephen Francis Vasta는 1950–1960년대 Ormandy·Munch·Dorati·Karajan의 큰 현악 합주 녹음과 뒤이은 작은 앙상블의 연주를 대비했다. 그가 평한 Yuri Zhislin과 Russian Virtuosi of Europe의 2015년 Orchid Classics 음반은 현악 18 명으로 녹음되었다 . David Nice는 BBC Music Magazine에서 이 연주의 가벼운 움직임과 풍성한 소리가 함께 들린다며 특히 Elegia를 높게 평가했다. Vasta는 같은 녹음의 일부 균형과 Elegia의 온기에는 아쉬움을
남겼다. 두 평은 편성이 작아졌다는 사실만으로 연주의 효과가 한 가지로 정해지지 않음을 보여 준다.

또 다른 실내악적 접근은 Daniel Hope가 이끄는 Zürich Chamber Orchestra의 2021년 Deutsche Grammophon 음반에서 찾을 수 있다. BBC Music Magazine의 Julian Haylock은 이 녹음에서 흐름을 끊지 않는 빠르기와 실내악에 가까운 질감을 들었고, Karajan의 1980년대 Berliner Philharmoniker 녹음에 비해 강한 합주 효과는 덜하다고 평가했다. 그의 비교에서는 현악 인원과 프레이징의 선택이 만드는 차이가 평가의 중심에 놓인다.

주요 자료

Tchaikovsky Research, Serenade for String Orchestra: 악장명 ·조성 ·편성 ·소요 시간, 첫 연주와
공개 초연, 편곡 ·초판 ·초기 공연.
Henle, Alexander Komarov의 비평판 서문, HN 7550 판 안내: 1881년 인쇄 순서와 1888년
Rahter판, 왈츠와 피날레의 노래 출처, 공연과 판본의 차이.
Culture.ru, 관현악 총보 자필 목록, 피아노 4손 편곡 자필 목록: 두 자필의 표제 ·헌정 ·소장처와 날짜
기재 여부.
Tchaikovsky Research, 1880년 von Meck 편지 1601, 편지 1609, Jurgenson 편지 1619, 첫

연주 후 편지 1632, 1881년 von Meck 편지 1840: 초기 장르명, 작곡가의 자기평가 ·출판 ·현악 인원과 피아노 편곡의 차이에 관한 직접 자료.
Tchaikovsky 백과사전, A. I. Klimovitsky 작품 항목, LA Phil, David Fick 해설: 악장 구성과 조성 배열, 1881년 Mozart 발언, 초연 ·발췌 공연의 수용.
Breitkopf & Härtel, Tanja Geschwind 편집판 안내, Fanfare, Levon Ambartsumian 인터뷰: 현악 인원 주석과 소편성 녹음의 직접 설명.

Stephen Francis Vasta, MusicWeb International 음반평, David Nice, BBC Music Magazine 음반평, Julian Haylock, BBC Music Magazine 음반평: 큰 ·작은 현악 합주의 녹음과 각 비평가의 구체적 평가.
Presto Music, Karajan·Berliner Philharmoniker 녹음: 전곡 ·악장별 분 단위 소요 시간.